



5면  
집배원이 전하는 따뜻한 안부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음 10월 13일) 제38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그린바이오 국가 거점 도약

### 전북자치도, '미생물융복합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선정 전주·익산·임실 등 도내 6개 시군 409만㎡ 규모 조성 연구부터 원료공급, 산업화까지 전주기 운영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에서 '미생물융복합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가 최종 선정되며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부상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미생물, 식물, 곤충 등 생물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하고자, 연구개발부터 생산, 사업화까지 통합적 생태계를 갖춘 지역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북은 미생물 기반 연구 역량과 기업 인프라, 산업화 경험을 종합적인 국가 전략체계로 인정받았다.

육성지구는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에 걸쳐 총 409만 5,293㎡ 규모의 복합형 산업지구로 조성된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농생명산업지구가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계되는 전국 유일의 구조를 갖춰 지역 간 시너지 효과와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도는 6개 시군별로 명확한 기능 분담을 통해 연구부터 실증, 기업 유치, 원료 공급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정읍시는 농축

산용 미생물 기업 집적지로서 생산과 실증 기능을 맡고, 순창군은 미생물 소재 기업과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의 산업화를 주도한다. 익산, 전주, 남원, 임실은 각각 기능성 식품, 화장품, 곤충산업, 유제품 등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확장과 시장 연계를 뒷받침한다.

육성지구 지정은 계기로 △연구역선 △기반조성 △전문인력양성 △투자 및 기업사업화 촉진 등 4대 추진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향후 3,055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116개 기업을 유치하며, 신제품 50종 개발과 지역원료 5만5,000톤 확보 등을 목표로 산업생태계 전환의 혁신을 추진한다.

공도 선정으로 일자리 창출, 첨단 농업 확장, 바이오소재 수출 증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높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전북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미생물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정읍과 순창의 미생물 산업을 중심으로 김제 종자산업, 익산 식품 및 동물용 의약품 산업, 남원 곤충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5대 특화 분야는 전국 단일 지역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산업 지도로 평가된다. /이만호 기자

또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은행(KACC),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순창 유용미생물은행 등에서 관리하는 18만7,000 균주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체계로, 안정적인 연구·생산 기반을 제공한다.

기업지원 정책도 개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수출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해 국내외 기업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총 3,615억원 규모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미생물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1,806억원 규모의 기반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농축산용미생물 GMP 산업화시설 구축,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확충,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마이크로바이옴 및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와 체계적인 산업 기반 구축이 이번 선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선5기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지구 지정은 전북이 보유한 미생물 연구 생태계와 산업 인프라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중심축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전북을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혁신의 중심지이자 세계 시장과 경쟁하는 글로벌 생산·연구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도청에서 전북은행, 농협은행,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탄소중립 햇빛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 전국 최초 '탄소중립 햇빛나눔' 사업 본격 추진

### 전북자치도, 전북은행·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약 내년부터 3년간 도내 복지시설 9곳에 태양광 설비 설치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중립 햇빛나눔' 사업에 전국에서 최초로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 사업은 도민이 절감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으로 탄소포인트를 기부하면 금융기관이 동일 금액을 후원해 복지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도청에서 전북은행, 농협은행,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탄소중립 햇빛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복지 모델을 선보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오현곤 전북은행 부은행장, 김성훈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과 농협은행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탄소포인트 기부금 전용계좌에 적립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연간 최

대 1,000만원까지 매칭 후원한다. 매칭 기부금은 태양광 설비 설치 재원으로 활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9개 복지시설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기부금은 연탄 지원, 녹지 조성, 온실가스 저감 캠페인 등 다양한 환경복지 사업에 활용됐다. 이번 '탄소중립 햇빛나눔'은 이러한 기부금이 다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로 환류되는 첫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 도, '2025년 집중안전점검 평가' 최우수

### 대통령 표창·특별교부세 13억7000만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위험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전문가가 함께 매년 추진하는 국가 안전관리 프로그램이다.

도는 올해 4~6월 동안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1,463개 시설을 대상으로 총 6,600여 명(기간 3,835명, 유관기관

455명, 공무원 2,322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실행계획 및 우수사례 △점검대상 선정 적절성 △점검방식 △결과관리·후속조치 노력도 △안전문화 확산 등 5개 분야에서 서면 심사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전북은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드론·열화상카메라·비파괴강도측정기·균열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740개 시설에 활용해 점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인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만호 기자

## “핵융합연구시설 부지 새만금 배제 유감”

민주 이원택 의원, 강도 높은 대응 예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군산·김제·부안)은 핵융합연구시설 부지의 도내 새만금 배제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공고문에 명시된 '무상양여 및 기본요건 충족 여부'가 신청 지역별로 절차적 하자 없이 엄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전 과정을 걸쳐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 북을 통해 "도민의 상실감과 분노를 점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인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과기부 장관 보고가 형



식적인 설명에 그친다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대 한민국 미래 에 너지 주권을 좌우할 핵융합연구시설 부지선정에서 또다시 전북이 배제되 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문제는 단순한 '유치 실패'가 아니다"며 "과기부가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지켰는지, 특정 지역을

면두에 두고 공모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정책의 투명성이 무너졌는지 여부를 따지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은 이미 수차례 국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뒤로 밀려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핵융합연구시설 부지선정에서까지 '기준은 전북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 새만금은 국가가 조성한 대규모 간척지로 토지 이용 계획과 인프라, 전력·에너지 인프라

면에서 핵융합연구시설 유치에 가장 적합한 후보지"라며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평가한다면, 새만금이 우선협상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배정훈 과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2일까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추가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3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사업지를 최종 확정짓고 2027년부터 10년간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이보다 앞서 입증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